

# 합스부르크가(家)의 화려한 궁전의 내부

Koreanisch



# ALBERTINA

# 궁전의 역사

비엔나에 위치한 알베르티나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수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알베르티나는 1805이래 유럽의 가장 화려한 고전주의적 궁전속에 자리잡고 있다. 알베르티나라는 명칭은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의 사위이자 수집품들을 모았던 작센-테센의 알베르트(Albert von Sachsen-Teschen) 공작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 1802년과 1804년 사이 알베르트 공작은 질바 타루카(Silva Tarouca) 백작의 소유였던 바로크 양식의 궁전날개부분을 건축가 루이 드 몽토에(Louis de Montoyer)에게 확장하도록 명령했다. 업선된 루이 세즈 스타일(Louis-Seize Style)의 실내 인테리어는 파리와 베르사이유에 위치하고 있었던 프랑스 왕실담당 제조업체가 맡게 되었다. 1822년 알베르트 공작의 양자이자 상속자인 칼(Carl) 대공은 당시 합스부르크 가의 궁전내부들을 프랑스 제국 스타일로 재디자인하도록 했으며, 요제프 단하우저 (Joseph Danhauser)에게 의뢰해 고품격적인 가구들과 예술적 가치가 있는 마루바닥 들로 궁전을 장식하게 했다. 1867년의 품격있고 역사적인 궁전 외부의 모습은 칼 대공의 장남인 알브레히트(Albrecht) 대공의 작품이다. 1895년과 1897년 사이의 궁전의 최종 실내장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알브레히트 공작의 조카이자 양자인 프리드리히 (Freidrich) 대공은 스페인 왕실이 자신의 영토 밖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렀던 유일한 장소인 《스페인 아파트》라는 공간을 건설했다.



작센-테센의 알베르트 공작의 궁전, Jakob Alt의 1816년도 작품, ©알베르티나, 비엔나

# 합스부르크가의 궁전

합스부르크가의 궁전은 총 21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공간들은 2층으로 이루어진 궁전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 공간 양쪽에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뮤즈홀은 이곳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19년 궁전이 오스트리아 공화국에 의해 몰수된 후, 궁전의 화려함을 대표했던 공간들은 창고 도서관이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수세기가 지난 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이 쇠퇴된 후, 클라우스 알브레히트 슈뢰더(Klaus Albrecht Schröder)는 주요 궁전공간들의 복원과 역사적인 건물외곽의 복구를 실시했다. 오늘날 인상적인 궁전의 공간들은 방문객들을 화려한 고전주의 시대로 안내한다. 복구된 건물 외곽은 궁전의 품격있는 지위를 나타내주며, 합스부르크가 사람들의 사회적 위신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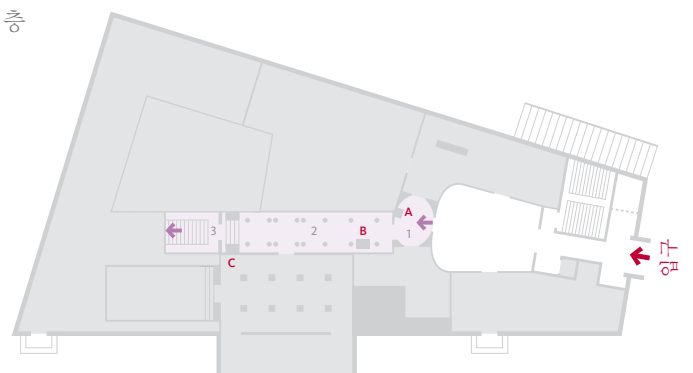
### 안내도

- |            |   |
|------------|---|
| 1 미네르바홀    | 16 로코코 양식의 방                                    |
| 2 기둥의 복도   | 17 웨지우드의 작은방                                    |
| 3 스펅크스 계단  | 18 타원형의 작은방                                     |
| 4 제1로비     | 19 칼 대공의 임종의 방                                  |
| 5 제2로비     | 20 작은 스페인 아파트                                   |
| 6 벽난로의 방   | 21 큰 스페인 아파트                                    |
| 7 작은 개인실   |   |
| 8 칼 대공의 침실 |   |
| 9 금장식의 작은방 | A 미네르바상(요제프 클리버의 작품)                            |
| 10 서재      | B 쉬고 있는 전사                                      |
| 11 다과실     | C 스펅크스  |
| 12 당구실     | D 2명의 뮤즈(요한 마틴 피셔의 작품)                          |
| 13 뮤즈홀     | E 아폴로와 9명의 뮤즈                                   |
| 14 영접홀     | F 작센-테센의 알베르트 공작의 흉상(Franx Xaver Messerschmidt) |
| 15 접견실     |   |

2층



1층



# 이 곳에 거주했던 사람들

재위 1794-1822

## 알베르트(Albert) 공작과 마리 크리스티네(Marie Christine) 대공비

작센의 알베르트(1738-1822)공작은 1766년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가 가장 아꼈던 딸 마리 크리스티네(1742-1798)와 결혼했다. 알베르트 대공은 결혼선물로 다른 선물 외에 테셴 공국을 위임 받았으며, 이 후 작센-테셴의 알베르트(Albert von Sachsen-Teschen) 공작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1780년 이 부부는 오스트리아령의 네덜란드의 총독으로써 브뤼셀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1792년 이 둘은 점점 접근해오는 프랑스 혁명가들을 피해 다시 비엔나로 탈주했으며, 아우구스티나 성의 성채자리에 세워진 질바 타루카(Silva-Tarouca) 백작의 소유였으며, 황제 프란츠(Franz) 2세(1세)가 선사한 궁전으로 이사했다. 1802년과 1805년 사이 알베르트 공작은 자신의 유명한 그래픽 수집품들을 궁전에 들여왔으며, 1816년 상속재산권을 통해 이 수집품들이 판매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됨을 확정했다. 이 수집품들의 수집가는 오늘날까지 1870년 처음으로 사용된 《La collection Albertina (알베르티나의 수집품)》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억되고 있다.

재위 1822-1847

## 칼(Carl) 대공과 헨리에테(Henriette) 공주

1822년 나사우-바일부르크의 헨리에테(Henriette von Nassau-Weilburg) 헤센 공주(1797-1829)와 결혼한 칼 대공(1771-1847)은 알베르트 공작의 양자로서 궁전을 상속받았다. 칼 대공은 아스페른 전투에서 나폴레옹군을 물리쳤으며(1809년 5월 21일과 22일), 요제프 코른호이젤(Josef Kornhäusel)에게 1822년과 1825년 사이 궁전의 대대적인 개조를 명령했다. 헨리에테 공주는 1823년 궁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세웠으며, 이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오스트리아의 전통의 시초가 되었다.

재위 1847-1895

## 알브레히트(Albrecht) 대공

칼 대공의 장남인 알브레히트 대공(1817-1895)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길을 걷도록 정해져 있었다. 궁전 앞에 세워져 있는 그의 기마상은 쿠스토차 전투(1866)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1847년 알브레히트 대공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물들을 상속받았으며, 트랙터에 증기기관을 설치함과 같은 근대적인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재위 1895-1919

## 프리드리히(Friedrich) 대공

프리드리히 대공(1856-1936)은 1874년 아버지의 사망 후 알브레히트 대공의 양자가 되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군총감독관을 맡았다. 프리드리히 대공의 전 재산은 1919년 몰수되었으며, 궁전과 함께 궁전에 소장되어 있던 모든 그래픽 수집품들도 함께 몰수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헝가리로 망명길을 떠났으며, 망명 시 크리스탈 상들리에, 카페트와 쇼파 같은 이동 가능한 물건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었다. 화려했던 《합스부르크가의 궁전내부》는 1920년부터 전시장, 창고, 도서관이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작센-테셴의 알베르트: 작자미상의 1777년도 작품. ©알베르티나, 비엔나, 가쿠: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 | 마리 크리스티네 대공비: Alexandre Roslin의 1778년도 작품. ©알베르티나, 비엔나, 가쿠: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 | 오스트리아의 칼 대공: Georg Decker (nach Anton Einsle)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1847년 이후의 작품. ©알베르티나, 비엔나 | 나사우-바일부르크의 헨리에테 공주와 장남 알브레히트 대공: Johann Nepomuk Ender의 작품, 년도 미상. ©알베르티나, 비엔나 | 알브레히트 대공: Georg Decker의 작품, 년도 미상. ©알베르티나, 비엔나 | 프리드리히 대공: 작자 및 년도 미상. ©알베르티나, 비엔나



작센-테셴의 알베르트 공작



마리 크리스티네 대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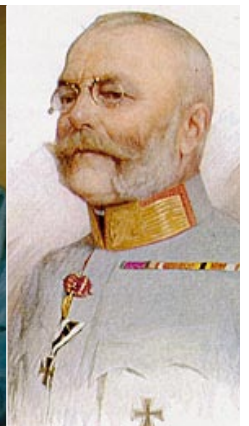
칼 대공



나사우-바일부르크의 헨리에테 공주



알브레히트 대공



프리드리히 대공

# 궁전내부

## 벽난로의 방, 작은 개인방과 침실 안내도 → 6, 7, 8번

《합스부르크가의 궁전내부》로의 진입은 1823년 요제프 클리버(Joseph Klieber)의 작품인 인간의 크기보다 훨씬 거대한 미네르바 여신상이 놓여져 있는 타원형의 미네르바홀을 통해 가능하다. 그 후 기둥의 복도와 스펡크스 계단을 지나 아름다운 층의 궁의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로비와 1885년 건설된 벽난로의 방 및 아담하고 품격 있게 장식된 작은 개인방을 지나면, 칼 대공의 옛 침실에 다다르게 된다. 이 침실벽은 원래 귀중한 비단으로 휘장 되어 있었지만, 이곳에서 일정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소위 스모킹 씨클 모임을 가졌던 프리드리히 대공에 의해 모두 떼어져 버렸다.

## 금장식의 작은방과 서재 안내도 → 9, 10번

서재는 《합스부르크가의 화려한 궁전내부》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의 고급스러운 실내장식들과 우아한 재료들을 보면 칼 대공이 1822년과 1825년 사이에 개조한 후, 궁전의 공간들이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을 띄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옆 방에는 금장식의 작은방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방에서는 알베르트 공작이 마련한 최고 품질의 실내장식들과 많은 특유한 장식품들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사용된 특별한 합금 방법은 (23캐럿의 금, 0.5캐럿의 은, 0.5캐럿의 구리) 오늘날 《알베르티나 금(Albertina Gold)》이라는 메이커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

## 다과실과 당구실 안내도 → 11, 12번

양홍색으로 치장된 벽으로 둘러 싸여진 다과실과 바로 그 옆에 자리잡고 있는 노란색으로 꾸며진 당구실은 인상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두 공간의 실내디자인은 1867년 알브레히트 대공에 의해 서로 교체되었다. 즉, 두 공간 사이의 벽이 창문 하나의 폭만큼 이동되어야 했으며, 그 후 벽과 천장, 창문과 심지어는 바닥의 모든 장식품들이 각각 다른 방으로 이동되어야 했다. (차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TEE》에 관한 사항: 1895년부터 테셴(독: Tschener) 대공의(독: Erzherzoglichen) 유제품 제조소에서 비엔나로 공급 되었던 버터를 앞의 스펠링을 따 《T.E.E.-Butter》라고 칭했으며, 여기서 오늘날의 양질의 버터를 의미하는 《Teebutter》라는 명칭이 유래하게 되었다.) 당구실은 귀족들이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알베르트 공작과 칼 대공은 그 당시 도박으로 여겨진 카드놀이보다 당구를 더 즐겼다.

## 뮤즈홀 안내도 → 13번

뮤즈홀은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연회 및 무도회를 개최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다. 5개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합스부르크가의 화려한 궁전내부》의 중심부를 비추고 있으며, 샹들리에의 가에 달린 장미꽃잎 문양이 새겨진 촛대에는 총 258 개의 초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 마치 출렁이는 물결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면과 기둥에 장식된 귀중한 대리석장식들과 금도금된 문들, 그리고 실내장식들은 뮤즈홀의 화려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 홀의 명칭은 《아폴로와 9명의 뮤즈》라는 인물 조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의 크기와 같은 사암으로 구성된 입상은 광택이 나는 흰색 표면을 지니며, 이로써 마치 대리석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 역시 요제프 클리버 (Josef Klieber)의 작품이며, 이 작품에 영감을 준 것은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 (Antonio Canova)의 작품들이었다.

칼 대공의 침실: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nA Blau, 가구: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 | 다과실: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dreas Hofer | 서재: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Rupert Steiner, 가구: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 | 뮤즈홀: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dreas Hofer



칼 대공의 침실



다과실



금장식의 작은방을 뒤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재



뮤즈홀

# 궁전내부

## 영접홀과 접견실 안내도 → 14, 15번

나사우-바이부르크의 헨리에테(Henriette von Nassau-Weilburg) 공주의 공식 접견실 이었던 이 두 공간은 1823년 이래 실내장식이 거의 변화되지 않아, 오스트리아 제국 양식의 권위를 그대로 재현해 준다. 이러한 프랑스풍은 혁명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으므로, 왕실과 고위귀족들에게 그리 호감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오히려 비더마이어(Biedermeier) 스타일을 더 선호했다. 전통적인 고가구,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재료인 레몬나무, 마호가니와 브라질 자단재의 나무판자, 정교한 광택 및 무광택 기술로 도금된 장식품과 천장과 벽을 휘장하고 있는 섬세한 그림들은 이 공간을 장식한 사람이 최고 수준의 예술적 재주와 고상한 취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로코코 양식의 방 안내도 → 16번

로코코 양식의 방은 궁전 내부공간 중 유일하게 《제2의 로코코 형식》을 보여주는 곳이다. 알브레히트 대공이 기동연습을 하고 있는 그림이 걸려져 있는 이 방은 대공이 1875년 새로 변형하도록 명령했다. 이 방은 이전에 나사우-바이부르크의 헨리에테(Henriette von Nassau-Weilburg) 공주의 집무실로 사용되었으며, 1829년 공주가 사망한 후에는 6명의 자녀들의 교실로 사용되었다. 칼 대공은 광범위한 자연 과학적·인문 주의적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혁신적인 교육계획과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교육가들을 지지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는 법률가이자 식물학자인 루트비히 리터 폰 쾨헬(Ludwig Ritter von Köchel)이 있었으며, 1862년 쾨헬은 일명 《쾨헬 번호》라는 모차르트의 전 작품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헌사를 자신의 학생이었던 알브레히트 대공에게 바쳤다.

## 웨지우드(Wedgwood)의 작은방 안내도 → 17번

이 작은 방의 특별한 점은 자연주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벽에 고정되어 있는 4쪽의 커다란 예술적인 그림들이며, 이 그림들은 4대 요소, 즉 地·水·火·風을 소재로 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화의 장면들을 재현해 놓은 영국 회사 조시아 웨지우드(Josiah Wedgwood)에서 완성된 자기판으로, 이는 목재판 위에 놓여 있다. 1792년까지 이 자기판은 알베르트 공작이 브뤼셀에 위치한 라켄(Laeken) 궁전에 머물 당시, 정원에 위치하고 있었던 《태양의 신전(Temple du Soleil)》에 장식되어 있었으며, 1792년 공작이 도피할 당시 비엔나로 함께 옮겨졌다.

## 타원형의 작은방과 칼 대공의 임종의 방 안내도 → 18, 19번

타원형의 작은방 내부의 벽면은 놀랍게도 비단이 아닌 종이벽지로 장식되어 있다. 《슈바인푸르트의 녹색》 속에 있는 문양을 따라 완성된 벽지들은 1829년도의 역사적 본보기를 따라 순수 수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옆방은 칼 대공의 임종의 방으로써 이 곳에는 1823년도 장식된 오리지널 실내장식품에 속하는 요제프 단하우저(Joseph Danhauser) 작품의 3세트의 가구들이 놓여있으며, 이들 중에는 비엔나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 소장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도 속해 있다. 또한 이런 장식품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에서 유명한 비엔나 제조업체의 높은 수공예 수준을 엿볼 수 있다.

## 스페인 아파트 안내도 → 20, 21번

《스페인 아파트》는 1895년 프리드리히 대공에 의해 스페인 왕실이 자국 영토 외부에서 긴 시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용도로 건설되었다. 1918년까지 이 아파트는 1885년 선종한 스페인 국왕 알폰스(Alphons) 12세의 왕비였던 프리드리히 대공의 여동생인 마리아 크리스티네(Maria Christine)와 1886년 태어난 그녀의 아들 알폰스(Alphons) 13세가 잤던 비엔나 체류 시 사용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7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아파트는 1952년 이후 단지 작은 아파트와 큰 아파트만이 남아있게 되었으며, 이 곳은 다시 요제프 단하우저(Joseph Danhauser)의 오리지널 가구들로 장식될 수 있었다.

접견실, 포지(로코코 양식의 방):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dreas Hofer | 로코코 양식의 방: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dreas Hofer | 웨지우드의 작은방: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dreas Hofer | 스페인 아파트: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nA Blau | 타원형의 작은방: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nA Blau, 가구: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 | 작은 스페인 아파트, 미네르바: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elwoods.at, 가구: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및 현대예술 박물관의 장기간 대여 전시품 | 큰 스페인 아파트: ©알베르티나, 비엔나, 사진: Andreas Hofer



접견실      양식의 방      웨지우드의 작은방      상: 칼 대공의 임종의 방, 하: 타원형의 작은방      작은 스페인 아파트      큰 스페인 아파트

알베르티나

Albertinaplatz 1

1010 Wien

T: +43 (0)1 534 83-0

F: +43 (0)1 534 83-199

E: [info@albertina.at](mailto:info@albertina.at)

[www.albertina.at](http://www.albertina.at)

관람시간

매일 10:00-18:00

수요일 10:00-21:00

# ALBERTINA